

## ‘물랑’ 박세리·‘인맥’ 안정환·‘말발’ 이동국

박세리, 6편의 라디오·예능 출연  
안정환, 방송인과 호흡 감각 좋아  
이동국, 공감능력 굿·진행도 잘해

스포츠스타들이 방송가를 장악하고 있다. 각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  
기까지 겪은 다양한 뒷이야기, 낯설지만  
그만큼 신선한 매력, 숨겨놓았던 반전의  
재미 등을 골고루 갖춘 덕분에 예능프로  
그램 속 스포츠스타들이 시청자의 큰 사  
랑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방송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는 이들이 있  
다. ‘골프 여제’ 박세리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 축구스타 안정환과 이동국이 그  
주인공이다. 토크쇼·관찰예능·야외활  
영 예능프로그램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 저마다 각기 다른 전략과 개성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연  
예스타’의 자리까지 넓히고 있다.

### ●‘불업 효과’ 박세리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방송가를 누  
비기 시작한 박세리 감독은 ‘물랑공세’  
로 확실한 효과를 봤다. SBS ‘정글의 법  
칙’, MBC ‘쓰리박’, E채널 ‘노는 언니’  
등 동시에 최대 6편의 라디오·예능프로  
그램에 출연하면서 시청자와 접점을 작



박세리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축구스타 안정환·이동국(왼쪽부터)이 저마다의 개성을 앞세워 방송가를 활발하게 누비고 있다.



이동국(가운데)이 저마다의 개성을 앞세워 방송가를 활발하게 누비고 있다.

실히 늘렸다. 화끈한 성격까지 내어 보  
이면서 ‘리치(rich) 언니’라는 별명을 얻  
어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확산 여파로 넓은 골프장을 배  
경 삼은 골프 예능프로그램이 각광받는  
현상도 호재로 작용했다.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의 잇단 러브콜 끝에 자신의 이름

을 내건 새 골프 예능프로그램까지 많았  
다. 골프와 토크쇼를 접목시킨 ‘세리머  
니클럽’(가제)을 6월 선보이기 위해 적  
극적으로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 ●‘인맥형’ 안정환·‘진행형’ 이동국

2014년 이후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하  
면서 예능 무대에서 성공한 스포츠스타

의 또 다른 대표주자로 꼽힌다. 2014년  
아들 리한 군과 함께 출연한 MBC ‘아  
빠! 어디 가?’를 시작으로 축구·요리·  
여행 등 각종 소재의 예능프로그램을 섭  
렵했다. ‘냉장고를 부탁해’ 김성주, ‘몽  
쳐야 잔다’ 김용만·정형돈 등 베테랑 방  
송인들과 콤비를 이뤄 예능 감각을 키워  
온 덕분이다.

이제 허재·최용수·이영희 등 동료 스포츠스타들의 갑작스런 자취하고 있다.  
현재 출연 중인 MBC ‘안싸우면 다행이  
야’에 이들을 등장시켜 7.3%(닐슨코리  
아)까지 시청률을 끌어 올렸다. 연출자  
김명진 PD는 17일 “안정환의 가장 큰  
매력 요소는 의리”라며 “알면 알수록 더  
욱 짙어지는 인간적인 매력이 시청자에  
게도 통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0월 그라운드를 떠난 이동국은 방송 입문 7개월째지만, 진행자로  
서 역량을 드러내고 있어 색다른다. 1월  
장윤정·홍현희 등과 함께 진행한 E채널  
‘맘 편한 카페’의 시즌2로 24일부터 다  
시 시청자를 만난다. 뛰어난 공감능력과  
부드러운 입담으로 진행자로써 적합하  
다는 호평을 이끌어낸 덕분이다.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으로 공개  
한 5명의 자녀들도 간간히 출연해 힘을  
보태고 있다. 동시에 SBS ‘정글의 법칙’  
등에도 나서면서 부지런히 경력을 쌓아  
가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코로나 보릿고개, 속편으로 넘는다

범죄도시2, 한산, 해적, 정직한 후보2 등  
전작 흥행 검증…새로운 이야기 기대만발



2014년 1760만여 관객을 모은 ‘명  
랑’의 후속편인 ‘한산:용의 출현’이  
올해 관객을 만난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감염병 시대, 한국영  
화의 미래에 대한 우려  
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  
히 제작현장의 문을 열  
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 가운데 전  
편의 흥행 성과에 기댄  
속편과 시리즈물의 역  
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  
고 있다.

올해 속편으로 관객  
을 만나는 영화는 네댓  
편에 이른다. 마동석 주  
연 ‘범죄도시2’를 비롯  
해 ‘한산:용의 출현’, ‘해  
적:도깨비 깃발’, ‘정직  
한 후보2’ 등이다.

‘범죄도시2’는 2017년 688만 관객 흥행작 ‘범죄도시’  
의 후속작이다. ‘한산:용의 출현’은 2014년 개봉해  
1760만여명을 불러 모아 역대 개봉작 최고 흥행작으로  
남은 ‘명랑’에 이은, 연출자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해전  
3부작’ 두 번째 작품이다.

‘해적:도깨비 깃발’은 2014년 866만여 관객의 선택을  
받은 ‘해적:바다로 간 산적’의 속편이다. ‘정직한 후보2’  
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  
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월 개봉해 153만여명이라  
는 적지 않은 관객을 모았던 화제작을 잇는다.

속편 혹은 이를 포함한 시리즈물은 올해 한국영화계  
의 뚜렷한 흐름을 이룰 전망이다. ‘범죄도시2’가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중단했던 촬영을 이어가고 있고, ‘한산:  
용의 출현’과 ‘해적:도깨비 깃발’ 등도 모든 촬영 일정을  
끝내고 사극 영화로서 또 한 번 흥행을 노린다.

영화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코로나19의 보릿고개를  
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무  
로 한 관계자는 “전편으로 관객의 선택과 흥행을 검증  
받았다는 점은 또 달리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는 데에  
도 상당한 힘이 된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 케이팝과 함께하는 저항의 목소리

미얀마·콜롬비아 시민 시위 등  
K팝팬들 국경 초월한 SNS 소통  
스킬, 노래로 미얀마 시민 격려

케이팝이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메시지  
를 공유하며 이를 확산하는 유용한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대중음악의 위력  
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팬들 사이 적  
극적인 소통의 매개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시민 불복종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미얀마에서 시민  
들이 케이팝을 저항의 운율로 삼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그룹 엑소

의 쉐, 방탄소년단의 슈가 등 케이팝 스타  
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담  
은 사진 등을 SNS에 올려놓았다. 또 미얀  
마 시민들에게 보내는 한국 국민과 문화에  
술인들의 지지와 연대에도 감사의 뜻을 전  
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레게 가수 스컬이  
미얀마 시민들을 격려하며 부른 ‘에브리싱  
월 비 오케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유튜브  
를 통해 공개돼 현지에서 적지 않은 반향  
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스페인에서도 케이팝 팬들이 극우  
정당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  
다. 17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누리  
마드리드 통신원에 따르면 현지 극우정당  
복스가 SNS 계정에 메시지를 올리면 케이



레게 가수 스컬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부른 노래 ‘에브리싱 월 비 오케이’의 뮤직비디오 한 장면. 현지의 시위 현장과 이들을 격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팝 팬들이 케이팝 스타들의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관련 동영상상을 담은 댓글로 응수하  
고 있다. 현지 유력 일간지 ‘엘 파이스’는  
발렌시아의 케이팝 팬들을 인터뷰해 “스  
페인 극우정당에 맞설 계정을 만들어 케이  
팝 아이돌의 동영상이나 노래로 극우정당

을 희화화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낸다”  
고 보도했다.

콜롬비아에서도 엇비슷한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 정부의 세계개편안이 서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  
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3주째 이어지는 가  
운데 케이팝 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지 팬들은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  
의 SNS 해시태그를 무력화하기 위해 해당  
계정에서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등 케  
이팝 스타들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온라  
인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 케이팝 팬들의 사회적  
발언은 그만큼 한국 대중음악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정누리 통  
신원은 “케이팝이 비주류, 일부 마니아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주류의 문화에서 다양  
성과 진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어’로  
쓰인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침습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갱신형)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보험금도 돈돈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험드셨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스텐가마솥 1개  
상당 완료 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2021.01.01 ~ 2021.12.31]

▶ 필수 후 7일 이내 최소 50만 이상 상당 시(가)보험료 배려  
▶ 배상금 상환완료 후 약 6주 소요 (연 1회 한도)  
▶ 당사 사이트를 통해 누락 가능 2회 초과시 자동 제한  
▶ 본 상품은 소비자자기 기준 30일 이내로 교환가능  
▶ 조기 종결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됨



▶ 가입 후 1일부터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전담 시 50% 보장)·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손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충하며, 보험 회사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예금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거지급금을 합하여 1억원)  
최고 5천만원(미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 가능함  
▶ 당사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담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람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